제 6강 언어와 무의식, 욕망하는 주체의 탄생

□오이디푸스의 재해석과 언어적 무의식

1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재해석 : 프로이트가 남근기 아이가 자가성애와 최초 이성애 사이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설명한다면, 라캉은 아이가 언어의 세계로 진입하면서 주체로 탄생하는 과정으로 이를 재해석한다. 라캉의 입장은 레비스트로스가 주창한 구조주의적 무의식 이론과 많이 통하는데 나중에 상징계 이론으로 정교화 된다. 오이디푸스에서 라캉은 아버지 자체가 아니라 그 기능을 강조하면서 남아나 여아 모두 어머니를 욕망의 대상으로 설정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유명한 '부성은유'이론이다. 오이디푸스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이 도식화된다.

• 1 단계 : 상상적 삼각관계 (어머니, 아이, 남근) :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 되려함 - 욕망에 대한 욕망 (to be or not to be). 아이는 아직 주체가 아니다.

• 2 단계 : 상징적 거세와 부성은유, 상징적 남근의 소유자로 가정된 아버지의 역할 (법과 금지의 담지자)이 핵심.

• 3 단계 :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극복, 아버지에 대한 상징적 동일화 (to be→ to have). 욕망하는 주체의 탄생. - 자아이상과 이상적 자아의 구별.

2 상징계 (symbolique): 상징계의 출발점은 잃어버린 대상을 대체하는 상징물의 출현으로 언어와 동일시되지만 본질은 순수차이인 시니피앙에 의해 구성되는 세계이다. 언어에 의해 매개되는 무의식은 대타자의 욕망에 대한 인정 투쟁으로 정식화된다.

①시니피앙이론 (logic of the signifiant) : 본질은 언어의 한계와 이중성을 가리킨다.

②소쉬르의 수정과 언어학의 차용 : 라캉의 시니피앙 이론은 언어학자인 소쉬르의 기호개념의 차용과 변환을 통해 만들어 진다. 형식주의 입장 : 칸트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대수학을 통해 표현된다.

※ 소쉬르의 기호이론 - • 언어의 기본단위인 기호는 음성적 요소인 기표 (청각적 이미지)와 의미적 요소인 기의 (개념)의 안정적(자의적) 결합.

• 언어는 기호들의 연합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기호들의 체계.

※ 라캉의 이론적 수정 - 라캉에게 언어의 기본은 기호가 아니라 시니피앙 (순수차이이자 변별적 최소단위)으로 언어는 언제나 비의미(구멍)에 의해 구조화된다.

• 라캉은 S/s를 새로운 기표이론의 연산식이자 무의식의 정식으로 제시. 빗장과 시니피에의 시니피앙으로의 끊임없는 미끄러짐(정신병의 경우 자의성은 개인적 차원으로 변질됨).

• 시니피에 (의미, 주체)에 대한 시니피앙의 절대적 우위성과 자율성. 시니피앙은 순수형식으로 대수학으로 기호화되지만 언어는 상징계와 상상계가 함께 작용해서 만든다.

라캉이 문자의 과학이라 할 때는 시니피앙 논리를 말하며 엄격하게는 언어와 구분된다.

③ 대타자 : 시니피앙의 장소이면서 주체와 진리가 솟아나는 곳.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에 대한) 욕망이다”.

언어는 주체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무의식이란 주체가 알 수 없는 말의 효과들인데 그것은 주체의 욕망이 외재적인 상징계에 의해 구조화되기 때문이다.

□ 욕망에 대한 정의와 정신분석의 윤리

① 욕망의 변증법 : 라캉은 스피노자와 마찬가지로 욕망을 인정에 대한 욕망으로 정의하는데 욕망은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캉의 욕망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욕구, 요구, 욕망을 구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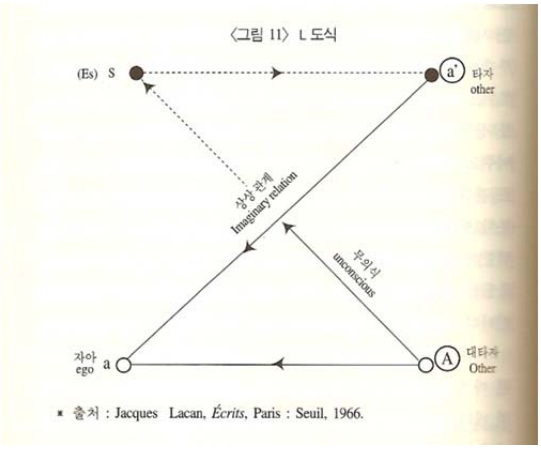
• 욕구(Needs) : 원초적인 본능으로 대상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간역시 유기적 존재이기에 욕구를 느끼지만 라캉은 동물적 차원인 욕구를 오히려 상상계에 연결시킨다.

• 요구(Demand) : 아이가 어머니를 통해 언어를 배우면서 본능적 차원인 욕구를 요구를 전환한 것을 배운다. 요구는 욕구의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무제약적 사랑에 대한 요구이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타자를 전제한다.

• 욕망(Desire) : 욕구가 요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둘의 불일치와 결여가 발생하게 되는데 욕망이란 이러한 결여의 표현이다. “이처럼 욕망은 만족에 대한 갈망도 아니고, 사랑의 요구도 아니며, 만족에 대한 갈망과 사랑의 요구의 차이이며, 그 둘의 분열 현상에 다름아니다.”

※ 남근(Phallus) : 라캉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남근과 생물학적 성기인 음경(penis)을 철저하게 구별할 것을 강조한다. 남근은 결여 (순수 무, 베일, 사라짐, 어긋남)의 기표로서 모든 의미화의 출발점이다. 남근은 시니피에를 강타하여 주체 속에 보충의 조건들을 생산하는 악마의 막대기라고 정의된다.

※ 상상계와 상징계를 통해 구성되는 주체성의 메커니즘 : L 도식



* 출처 : Jacques Lacan, *Écrits*, Paris : Seuil, 1966.

※ L도식은 주체의 내적 구조일 뿐 아니라, 주체 상호간의 관계도 잘 보여준다.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상상계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에 본성상 오해의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② 정신분석의 윤리 : 욕망은 대상의 결여가 아니라 존재결여 (lack of being)에서 비롯되는데 존재란 언어에 의해 무화되면서도, 자신의 무화를 통해 상징계를 구성하고 가능하게 만든다. 존재의 영역은 결국 상징계에 의해 배제되면서도 상징계에 저항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로 돌아오는 실재계이다. 실재계에 속하는 존재자체를 겨냥하는 것이 욕망의 올바른 방향이며, 라캉은 이를 욕망의 윤리라고 명명한다.

3 실재계 (Real) :

* 성과 죽음의 영역으로 의미화가 불가능 (상징화에 저항)하며 균열이 전혀 없다. 정신분석의 목표는 욕망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 농담, 말실수, 수사법처럼 일상적 말의 틈바구니에서 주체의 분열을 보여주는 '꽉찬발화' 가 중요. 증후들을 통해서 억압된 것이 회귀한다.

* 실재계의 대표적 표식은 물 (Ding, Chose, Thing). 라캉은 욕망을 윤리적 차원으로 인식하면서 그것의 대상이 실재임을 세미나 7에서 강조한다.

* 실재는 상징계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항상 그 자리에 돌아오고 저항한다.

* 실재는 주체의 물질적 토대 (성적리비도가 발원하는 몸)로 정의할 수 있다.